

“DMZ에서도 살아요”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2년 연속 포착

입력 2022-01-23 17:48



지난해 8월21일 비무장지대 내에서 포착된 반달가슴곰 성체의 모습. 환경부 제공

비무장지대(DMZ)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의 성체 모습이 포착됐다. 2018년 새끼가 처음 발견된 후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동부지역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달가슴곰의 서식이 2년 연속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연구진은 비무장지대 군부대에서 보내온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무인센서카메라 자료를 분석해 반달가슴곰의 생태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2020년 4월 16일 반달가슴곰 성체 1마리가 포착됐고, 그해 5월 29일 다른 지역에서도 성체 1마리가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혔다.

2021년 4월 21일과 8월 21일에는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개체로 추정되는 성체 1마리가 포착됐다. 이 곰은 6월 1일 다른 장소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2018년 10월 12일에는 생후 8~9개월로 추정되는 어린 반달가슴곰이 무인센서카메라에 처음으로 발견됐다. 새끼 반달가슴곰은 지난해 성체가 포착된 장소와 직선거리로 6.2km 떨어져 있다. DMZ에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으리라는 추정은 있었지만, 실제 모습이 생생하게 찍힌 것은 당사가 처음이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반달가슴곰이 비무장지대 내부에서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2018년에 카메라에 잡힌 어린 개체와 지난해 포착된 성체가 동일한 곰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비무장지대에서 반달가슴곰의 서식이 계속 확인되는 만큼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998년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해 복원사업을 통해 보

호하고 있다. 2001년 지리산 일대에서 5마리로 시작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현재 70여 마리로 늘어나 지리산과 덕유산, 김천 수도산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이예슬 인턴기자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